

大學의 社會奉仕 : 그 實際와 優先順位

朴 水 妍
(梨花女大 教育學科)

대학의 주요 임무가 敎授와 研究에 있다고 하지만, 대학의 社會奉仕機能 또한 경시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사회봉사 기능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그 정당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대학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I. 머리말

오늘날 大學이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그 意見을 달리하고 있다. 대학은 재학생의 社會化, 학문적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에 奉仕하는 機能을 갖고 있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또 다른 見解를 갖고 있는 학자들은 대학이란 마치 知識의 博物館과 같아서 교수는 管理者 또는 知識의 창조자로서 批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使命에 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敎授(teaching), 연구(research), 그리고 봉사(service)라는 세 가지 機能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학의 기능에 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대학이 西歐大學의 여러 가지 다른 傳統을 계승한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歷史적으로 보더라도 英國의 전통에 따른 기능은 學部학생에 대한 전문적 교육으로서 특별

하게 선발된 젊은이들에게 社會化를 시키는 것이고, 독일의 傳統에 따른 대학의 기능은 사회적 研究와 대학원생의 訓練이라고 하는 연구 중심적 과업을 가리키기도 한다. 美國의 전통으로서의 대학의 기능은 그 周邊에 있는 여러 사회적 기관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대학의 敎수기능은 영국적 전통이며, 연구기능은 독일적 전통이고, 대학의 사회적 봉사기능은 미국적 전통으로부터 繼承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論考에서는 대학의 세 가지 傳統과 機能 가운데 社會奉仕의 機能을 조금 더 概念化시켜 보고 오늘날의 대학이 모색해야 할 길을 이 같은 관점에서 찾아보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봉사에 대한 현실적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의 社會奉仕的 機能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한다. 특히 지식의 保管者로서 대학은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봉

사를 통해서 대학이 保有하고 있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利用할 수 있는 기회를 創出해야 한다는 것이다. 專門의 지식은 대학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社會는 점차적으로 대학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대학이 社會奉仕에 參與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이 보존하고 있는 지식이 학생에게 전수되고 教授 외에 많은 成人들에게도 나누어져야 하며 대학은 社會奉仕를 통해서 現存하는 知識을 實驗해 볼 수 있다. 더우기 지식을 現實적으로 適用해 본다는 것은 대학 자체의 새로운 知識開發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社會奉仕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이 機能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個人들은 많은 장애물을 발견하게 된다. 研究 결과를 출판한다거나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대학내에서 동료들이 認定하여 주지만 社會奉仕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학에서는 이를 知的 활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狀況을 보면 실제로 대학의 社會的 奉仕가 무엇인가에 대한 定義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社會奉仕에 대한 보상을 대학으로부터 認定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대학의 주요 임무가 교수와 연구에 있다고 하지만 그 밖의 노력을 통해서 社會奉仕하는 것이 社會의 한 부분을 여러 면으로 도울 수 있다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大學의 社會奉仕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II. 社會奉仕의 뜻

社會奉仕라는 말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高等 教育機關에서 넓게 쓰여지고 있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봉사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意味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봉사'라는 개념은 고등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학의 관리자나 교수들이 이따금 社會奉仕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더우기 대학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社會奉仕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것을 실제로 찾아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봉사 프로그램이나 봉사 활동은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 研究나 教授의 機能에 훨씬 떨어지는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학의 社會봉사 기능에 관한 論爭은 사실상 오래도록 계속되어 왔었는데 이는 대학 본연의 성격이나 목표와 관련된 根本的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인 것이다. 奉仕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大學이 政府機關이나 이에 유사한 公共기관으로부터 財政的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대학의 社會奉仕의 성격을 부각시키곤 했었다. 결국 奉仕라는 말을 쓰면서 대학의 새로운 시도나 '프로그램'을 합리화하였으며, 특히 전문적인 직업대학을 창설하려고 할 때는 대학의 社會봉사적 활동이 더욱 강조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학 기능의 상당한 부분이 奉仕의 활동이라고 하지만 연구나 교수보다는 성격상의 우선 순위가 낮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학이 불확실한 앞날을 바라볼 때마다 社會的 奉仕에 관한 임무가 강조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概念을 밝혀보기로 한다.

奉仕의 概念을 설명함에 있어서 대학 그 自體의 性格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학 그 자체는 상아탑 또는 社會奉仕의 場(social service station)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文化市場(culture mart)이라고도 묘사된다. 이같이 知識이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대학 자체를 묘사하기도 하지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 능력을 포함한 대학의 可能性을 기준으로 해서 社會奉仕의 遂行이란 점에서 보면 價値觀을 통한 봉사활동, 社會批評, 社會問題의 해결, 또는 社會的 活動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지니고 있는 社會奉仕의 理念에 대한 것은 歷史的으로 高等教育機關, 植民地政府, 그리고 日本帝國主義政府의 三者가 서로 얽혀 있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植民地統治를 위한 人材의 양성으로서의 봉사, 韓國社會 指導者的 日本的 社會化, 그리고 植民社會가 필요하는 專門의 지식의 보급 등으로부터 시작되어 2차대전 이후 美國式 대학의 이념에 따라 大學教育의 大衆化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대학은 日本的 傳統을 계승하여 보다 상아탑적이고 研究에 치중하는 西歐的 樣

학으로 발전했었다.

'60년대의 '70년대에 걸쳐 韓國의 經濟發展과 급격한 社會變革에 소요되는 전문적 지식은 물론 인계의 양성 때문에 韓國의 高等교육기관은 產學協同, 또는 官學協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봉사적 기능이 확대되고 있었다. 대학의 研究機關, 또는 교수 개인의 연구가 사회에 공헌한다는 뜻에서 研究費의 지급이 政府와 產業體에서 막대하게 放出되기 시작하면서 韓國 대학의 社會奉仕概念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社會的 批評精神을 발휘하기도 했으며 社會問題의 해결을 위한 政策研究에도 크게 기여했고 大學人의 사회적 활동이 크게 신장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대학 내부에 있어서는 傳統的인 社會奉仕機能을 주장하는 생각과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들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對峙하는 현실에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韓國의 高等教育機關의 社會的 活動과 奉仕를 하는 기회와 그 영향력이 지난 30여 년 사이에 크게 신장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研究와 敎授를 제외하고는 大學外的 集團과 관련된다는 의미에서의 公共的 奉仕의 정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립되기 어렵다. 公共社會的 奉仕라는 의미로서 활동하는 대학의 실제적 내용은 研究活動이 대부분이고 敎授가 나머지의 活動領域으로 되어 있다. 대학의 사회봉사로써의 가장 좋은 활동 내용은 研究와 敎授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社會的 또는 公共的 奉仕라는 의미로서의 研究와 敎授가 傳統的인 대학의 研究나 敎授機能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는 특히 대학이 지원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公共的이거나 社會的인 奉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전통적으로 대학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大學外的 集團을 위한 연구와 교수인 것이다.

大學外的 集團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학의 '서어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 社會的 關係의 動的 變化에 따라 자꾸만 다른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대학 외적 집단이 '서어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적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① 대학이 문제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企業이나 政府, 또는 특정한 개인과 地域社會에 諮問, 情報 또는 技術的 支援을 하는 경우

② 公共的 政策問題의 해결을 위한 연구로서 大學의 機關이나 敎授 個人과 集團이 각각 일하게 되는 경우

③ 會議, 세미나, 워크샵, 또는 短期과정 등 非學位과정(non-degree program)을 통해서 公務員, 社會奉仕員, 企業의 간부, 또는 여러 專門家에 대한 敎育支援을 하는 경우

이 같은 敎育的 支援을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좋은 예는 대학 교수가 企業 또는 政府에 나가서 연수교육에 협조하는 일이라든지 대학의 研究所가 기업과 정부의 여러 課題를 맡아서 연구하는 일, 또는 대학이 平生敎育 '프로그램'으로서 非正規的 大學敎育을 실시하거나 專門家의 연장교육을 실시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최근에 와서 대학은 社會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研究를 수행하고 대상을 위한 敎育의 場을 마련하는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Ⅲ. 大學의 使命이라는 뜻에서 보는 社會奉仕

지금까지 概觀해 본 社會奉仕라는 것은 高等敎育機關이 지니고 있는 중대하고 적절한 使命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어떻게 보면 대학의 社會奉仕는 研究나 敎授와 똑같이 중대한 사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奉仕의 측면의 대학 機能은 연구나 교수보다 덜 중요하고 順位가 낮은 기능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학 본연의 機能이라고 할 수 있는 研究와 敎授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社會奉仕活動과 연계를 갖도록 할 것인가는 또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어떤 활동을 사회봉사라고 말할 것이며, 奉仕關係를 갖게 되는 地域社會, 政府機關, 企業과 產業體 가운데 어떤 對象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인가를 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봉사관계의 優先順位를 꼭 정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奉仕活動의 「全般的인 것」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이슈이기도 하다.

대학의 社會奉仕에 관한 理論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주로 文獻에서 토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體系的인 理論化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高等教育의 奉仕의 역할에 관한 대립된 입장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社會奉仕의 機能이 그 存在價値가 있게 되는 근거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대학의 奉仕의 機能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이는 定義의 혼동에서 기인되기도 하며 실제로는 定義上的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대학이란 것을 全體的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高等教育 전반에 대한 견해에서 기인되며 특히 高等교육의 目的이나 優先順位, 또는 高等教育機關과 政治·經濟·社會秩序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서로 다른 견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奉仕의 機能에 대하여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례는 高等教育의 哲學이나 目的에 대한 討議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대학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연관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 高等教育의 역사는 지난 40여년간 변해 가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치적 발전에서 볼 수 있는 制度的 측면과 教育의 現實의 측면을 다같이 수반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지금까지도 現實的인 與件인 社會全般에 의존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대학의 고객이 되는 학생과 대학을 經濟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전반에 크게 의존했던 것은 사실이다. 결국 대학과 사회 전반과의 關係規定이 대학의 奉仕의 概念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高等교육기관의 社會奉仕를 가지고 대학이 社會的인 參與를 하거나 또는 대학을 支援하게 되는 근거를 삼게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대학의 社會奉仕가 대학내의 教育內容을 改革하는 正當한 근거로 되는 경우도 있다. 韓國의 高等教育機關의 發展史를 통해 보더라도 대학의 교과과정 또는 학생에 관련된 개혁을 할 때나, 대학의 조직이나 규모에 변화를 가져올 때나 대학 「프로그램」과 活動의 내용을 革新할 때

에도 高等교육기관의 보다 나은 社會的인 寄與와 奉仕를 이유로 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社會奉仕의 機能은 항상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상아탑이라는 견해는 韓國이나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결국 대학이란 「現實世界(real world)」의 여러 가지 일이나 爭點으로부터 意圖적으로 격리된 학생과 교수들이 고립되고 自律적으로 이끌어가는 특별한 곳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성스러운 곳으로서 대학과 기타 사회와의 사이에 명백히 구분하도록 된 경계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곳이라는 것이다. 美國의 Algo D. Henderson이나 Robert P. Wolff 같은 교수들은 이 같은 상아탑이 하는 일이란 文化的인 遺産을 保持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며, 객관적이고 私的인 욕심이 없는 學者의 소양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영원한 價値를 가르치며, 이와 함께 批判的인 사고와 分析的인 재능을 기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학은 現實世界의 문제를 討論과 研究,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며, 학생들은 적극적이고 관심 있는 市民으로서 이 같은 문제를 알아내고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高等教育의 상아탑적 성격과 社會的인 봉사기능이란 정확하게 教育과 研究에 있는 것이며, 文化的인 遺産의 保存과 傳授에 있고, 眞理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教育은 봉사이며 眞理의 추구 또한 봉사라는 것이다. 대학과 사회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여 대학이 주요 機能을 달성할 수 있게 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아탑은 교수나 학생들이 社會批評을 하고 현존하는 사회·정치·경제질서의 잘못된 것과 나쁜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차선책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奉仕하는 것이다. 社會批評은 대학이 「상아탑」으로서 존재하고 유지되는 正當性의 근거가 되며 하나의 奉仕유형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學의 「이미지」를 社會奉仕의 場이라고 보아 왔던 지난날의 생각과 최근의 綜合大學

(multiversity)이나 대학의 效用價値에 관해서 논의되고 있는 高等教育의 '비전'에서 볼 때 특별한 견해가 성립된다고 본다. 이는 특히 Clark Kerr 교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教育哲學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社會奉仕의 場으로서 대학의 봉사는 知識의 社會的 重要性에 있다는 것이다. 지식이란 사회의 중심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회의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그 지식을 갖고 싶어하고 요구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마치 지식을 생산하고 都·小賣하는 機關과 같아서 이 같은 社會的 奉仕의 요구를 기뻐할 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지식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社會的 奉仕란 학생이나 사회의 여러 기관에게 生産된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지식의 범위가 확장되고 대학 외적 집단의 지식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大學의 機關과 社會 사이의 경계는 사실상 애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高等教育의 大衆化 경향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經濟發展 과정과 社會變革이 급격했던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서 특별하게 생긴 현상이기도 하다.

高等教育이 社會的으로 보아 階層을 上部로 移動(upward mobility)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직종에 비하여 기술훈련을 통한 社會化나 大學外 集團에게 직접적 봉사를 하게 되는 수단이 될 경우에 있어서 대학이 확실히 社會奉仕의 場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대학은 어디까지나 中立의인 기관이어야 하겠지만 社會奉仕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가 支配的으로 갖고 있는 價値觀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教育評論家인 Howard Adelman이 대학이란 文化市場(culture mart)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앞으로 생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의 특수성과 社會의 여러 기관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진 것이 사실이고 특히 교육이나 훈련이라는 것이 대학의 獨占的인 것이 아니고 社會의 모든 기관이 教育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은 교육내용의 '부로커(broker)'가 되며 나아가서 교육내용을 점검해 주는 역할밖에 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학의 使命에 따라 대학을 세 가지로 보는 견해를 소개했지만 문제는 대학의 奉仕的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高等教育의 本質을 '서어비스'에 있다고 보는 것은 모두 동일한 견해이지만 그 奉仕의 方向과 限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대학을 보아 왔던 것이다. 다음의 節에서는 大學의 使命으로서의 社會적 봉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논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려고 한다.

IV. 大學의 社會奉仕 類型

高等教育과 社會奉仕에 관한 文獻들은 대학의 奉仕類型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價値觀을 통하는 길, 社會批評을 통하는 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길, 끝으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의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만일 教育事業의 본질이 사회봉사라고 하는 경우에는 봉사의 類型으로서의 研究와 教授에 관한 定義를 再定立해야겠지만 대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서어비스' 기능이란 개인의 가치관을 개발시키는 것이며, 個人主義와 地域主義, 質과 量, 科學과 人文, 信仰과 理性 등과 같은 가치관의 여러 주장과 어떻게 조화를 갖게 할 것인가를 개발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대학이 社會批評을 한다는 것이 가장 根本的인 대학의 기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大學社會와 一般社會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는 직접적인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社會批評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현재 教育機關만이 사회의 再生이나 새로운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지속적 批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自律性과 學問의 自由를 갖는 대학의 傳統은 사회비평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비평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온 것이다.

물론 美國과 日本 등 先進 여러 나라의 대학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政治化되어 대학의 적극적 사회참여 현상이 있었다. 이럴 때마다 교수와 학생이 學問의 自由와 社會批評을 할 수 있

는 데 근본이 되는 獨立性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비교적 보수적인 '그룹'에서는 대학의 입장을 政治·社會的인 문제로부터 제한하여야 대학의 獨立性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대학의 봉사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진보적 '그룹'은 대학이 政治的立場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결과를 맺게 된다고 맞서기도 하였다.

韓國의 대학은 그 設立 초기부터 民族의 지도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엘리트층 양성에 왔기 때문에 자연 대학이 政治的 現實과 밀접하게 작용해 왔었다. 교수와 학생은 左右로 갈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國家의 運命을 걸머지는 결정을 해야 했고 帝國主義와 共產主義와 투쟁해 온 廣場이라서 대학은 처음부터 政治化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때문에 차라리 社會批評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대학의 獨立性이나 自律性이 크게 統制받아 왔었다.

지식의 저장소와 관리자라는 의미는 初期的經濟發展 과정에서 대학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봉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했었다. 대학의 사회봉사의 유형으로서 社會問題解決을 통한 봉사라는 개념이 가장 大衆的이기도 하였다. 사회는 문제의 해결을 대학의 知性에게 호소해 왔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官僚體制와 '테크노 크라트(technocrats)'의 발전이 없었던 '60년대에 있어서 대학에 거는 기대가 컸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대학 교수는 물론 학생들도 當代的 社會問題의 해결에 學問的 接近과 專門性을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인턴이나 실무경험의 기회를 얻어서 '現實世界'의 문제를 접하면서 장래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쌓게 된다. 교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原則的인 책임이 되는 敎授와 研究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專門家的 자문과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高等教育機關으로서의 대학은 複合的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科學的이고 技術的인 知識을 적용하면서 정부와 사회의 여러 차원에 지원 하는 것이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의 공급을 대학이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대학의 奉仕기능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며 대학 내부에 있어서도 學生과 敎授社會에서 양분된 찬반의 견해가 유지되어 왔었다. 學問的 '御用性'이라는 점과 '革新的 온상'이라는 두 갈래길에서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현실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해 왔었다. 兩者의 見解가 모두 다 대학의 책임이 社會發展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高等教育機關의 社會的責任性을 저버린 견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대학은 社會的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參與해야 한다는 social activism을 통해서 봉사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같은 입장은 결국 앞서 지적했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봉사의 단계를 한발 넘어선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교수와 학생은 물론이고 대학 자체가 現實社會論爭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60년대의 대학에 대한 自己批判'으로부터 나온 혁신적 견해이지만 차라리 사회에 대한 價値觀의 표현이고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구가하는 것이다. 社會正義, 人道主義, 機會均等, 環境保護 등의 가치주장을 행동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이 研究, 敎授, 社會奉仕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연유된다고 본다. 심지어는 대학은 그 본질상 政治와 變化의 代行者라고까지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 진리를 추구하고 이 진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대학의 政治化가 낳은 하나의 견해이지만 아직도 우리 대학에 있어서는 이 같은 주장이 대학의 自律化라는 경향과 이율배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대학의 社會的 責任은 문제해결의 길을 모색 하면서 수행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학생과 교수를 사회의 여러 기관과 구분할 경계를 잃게 되어 대학의 獨立性과 신성함을 잃게 된다고 본다. 학생과 교수의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獨立性을 유지해야 하며 대학 스스로가 社會의 어떤 문제에 관여할 것인가를 自律的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 능력은 大學 本然의 自律的 運營原則에 따라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 *